잃어버린 아쉬움 너머 빛나는 '남은 것'에 대한 외경심

⑮ 고달사지, 우뚝하여 슬픔이 큰 도량





'고달사 부도'의 중대석 조각(사진 위)은 고려시대 부도의 백미다. 아래 사진은 원종대사 혜진탑비의 귀부와 이수. 1915년 깨진 탑신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보관 중이다.

서기 958년 8월 20일. 고달원(高達院) 선당(禪堂)에 대중들이 몰려들었다. 스승이신 원종 대사가 열반에 들 때가 됐음을 알고 목욕한 다음 방 앞으로 제자들을 모은 것이다. 대사가 마지막 가르침을 내렸다.

"만법은 모두 공(空)한 것, 나는 곧 떠나려 하니 일심으로 근본을 삼아 너희들은 힘써 정진하라. 마음이 일어나면 곧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법도 따라서 멸하나니 인심이 곧 부처님이거늘 어찌 별다른 종류가 있겠는가? 여래의 정계(正戒)를 힘써 보호하라."

대사는 유훈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엄연하게 가부좌를 맺고 입적했다. 나이 90세, 법랍은 69세다.

임금께서 부음을 들으시고 선월(禪月)이 너무 일찍 빠짐을 개탄하고, 각화(覺花)가 먼저 떨어짐을 슬프다 하시고 사람을 보내 조의를 표하고 시호를 원종 대사(元宗大師) 탑호를 혜진(慧眞)이라 추증했다. 그리고 진영을 조성하고 국공(國工)으로 하여금 돌을 다듬어 층총(層塚)을 만들어 문인들이 호곡하면서 색신을 받들어 혜목산 서북쪽 산기슭에 탑을 세웠다.

이후 제자들이 대사의 행적을 새긴 비석을 건립하고자 임금께 간청하니 임금은 "가(可)하다"하며 한림학사 김정언(金廷彦)에게 명했다. "혜목대사(慧目大師)는 덕행이 높아 구름 위에 있고 복덕은 넓어 모든 인간을 윤택하게 했으니, 그대는 마땅히 훌륭한 문장으로 국사의 공훈을 적어 비석에 그 무성한 업적을 기록하도록 하라"고 했다.

여주 고달사지로 가기 전에 원종 국사 찬유(燦幽 868~958) 스님의 비문을 읽습니다. 비문은 한 사람의 일생이 가장 아름답고 간결하고 투명하게 새겨진 정성스러운 글입니다. 다소 비약이 있고 과장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 주인의 인덕과 공적이 수승하고 커서 언어로써 다 표현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지 거짓으로 꾸민 것은 아닙니다. 비문의 문장은 아름답습니다. 그 주인공의 덕화와 향기로운 언행을 미려하고 장중한 언사(言辭)로 기록하는데 지은이의 문장력이 비문을 통해 유감없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대개 왕명에 의해 지어지는 비문은 당대 최고 문장가의 문자향을 맛보게 합니다.

비문에는 기본적으로 그 주인공의 출생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 부모와 가계(家系)를 기록하고 태몽이라든지 어린 시절의 특이한 행적 등을 밝힘으로써 비범한 인물상을 드러냅니다. 다음으로는 수학기(修學期)의 행적과 스승 동학(同學)의 도반, 제자 등을 기록하고 임금이나 특별한 인사와의 교류 관계도 찬찬히 올립니다. 스님의 경우 거처하고 수행하던 장소와 일화 대화록이 매우 사실적으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입적 상황을 상세하게 적어 둠으로 그 주인공의 수행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입적 이후 주변 인물들의 슬퍼하는 상황과 천지만물이 애석해 하는 모습을 비감(悲感)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부도탑을 짓는 경위와 비문을 짓고 탑비를 세우게 된 경위도 빠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비문의 말미에는 그 주인공의 권속들과 산중 인물들을 낱낱이 기록하는데 비문은 후세 사람들에게 당대의 족보가 되기도 합니다.

고려 초기의 우뚝한 선걸(禪杰) 원종 대사의 혜진탑비 비문에는 대사의 출생에서 입적 이후의 상황까지 매우 소상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 비문이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달사라는 절의 규모와 당대 스님들의 면면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비문은 역사 속의 스승을 오늘의 스승으로 만나게 하는 또 하나의 경전인 것입니다. 부도밭 기행을 떠나기 전날 밤, 비문을 읽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그 고즈넉한 부도밭으로 달려가곤 합니다.

6월의 뜨거운 햇살을 피해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차를 세우고 나오니 황토색 너른 들판이 눈을 가득 채웁니다. 고달사지입니다. 이 유적지 또한 논밭이었던 곳을 경기도박물관이 발굴조사를 하면서 고려대의 호방한 선풍이 스민 절터의 흔적을 들춰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절터는 허허롭습니다. 넓이에 비해 그 옥토에 드러난 성보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지로 들어서는 순간, '양 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속설을 인정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눈을 압도하는 것은 석불대좌(보물 제8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잘생겼다는 수식이 필요 없습니다. 한 눈에 이 대좌의 풍모를 가늠하게 되고 그 위에 당당하게 올라앉았던 부처님을 그리게 됩니다. 대좌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동안 석불이건 철불이건 그 대좌 위에 앉아 있었을 부처님이 그리워집니다. 그 부처님을 잃어버린 세월이 슬퍼지기도 합니다. 우뚝하여 슬픔이 큰 사지가 어디 이곳 뿐이겠습니까마는, 이 아름다운 조형 앞에 서는 6월의 뜨거운 햇살이 슬픈 마음을 더 달구어 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발길을 돌리면 더 큰 슬픔이 밀려듭니다. 20m 남짓 올라간 곳에 당장이라도 바다로 뛰어들 것 같은 돌거북이 용의 머리를 쑥 내밀고 탄탄한 발톱으로 땅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바로 원종대사 혜진탑비를 얹었던 귀부와 탑신을 덮었던 이수(보물 제6호)입니다. 그 위에 올려놓은 이수는 또 한 번 상실의 슬픔을 솟구치게 합니다. 깊은 조각과 꿈틀거리는 용의 몸통 그리고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의 얼굴과 구름문양이 이룬 조화는 그대로 하늘의 서기(瑞氣)를 땅에 드리우는 것 같습니다. 혜진탑비 위쪽에 놓인 또 하나의 돌거북은 몸통이 둥글고 자세가

원종대사 탑비 귀부 · 이수 크기와 조각 솜씨 '백미'

부도 옆 개인 비림 조성 관리 허술 드러내… "문화재보호사찰 지정 필요"

비문은 역사 속 스승의 생애 · 가르침 전하는 '경전'

유연한데 머리를 잃어 버렸습니다.

발굴조사가 멈춰진 고달사지에서 만날 수 있는 성보는 두 개의 수조(水槽)와 석불대좌 그리고 혜진탑비의 귀부와 이수 또 하나의 이름 없는 돌거북이 전부입니다. 사방 30리가 전부 고달사 땅이었다고 전하지만 지금 그 터에 남은 성보가 수적으로는 빈약하지만 낱낱이 장중하고 아름다우니 이나마 친경하는 인연이 감사할 뿐입니다. 고달사지에서 만나는 성보들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을 남은 것에 대한 외경심으로 바꿔 줍니다.

발굴조사가 이뤄진 영역을 벗어나 뒤편 숲길을 따라가면 언설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름다움과 문장으로 묘사하기 어려운 장엄함으로 서 있는 두 기의 부도를 만납니다. 먼저 발길이 닿은 곳은 고달사부도(국보 제4호)입니다.

발굴된 사역 뒤편 고달사 마당을 지나 밤나무 숲길을 따라 간 곳에 높이 3.4m의 웅장한 부도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팔각원당형의 양식을 충실히 따랐지만 중대석의 조각이 고려시대 석물조형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귀부의 머리처럼 툭 불거져 나온 용두도 놀랍고 양 쪽으로 두 마리씩의 용이 여의주를 다투는 모습을 새겨 놓은 힘차고 섬세한 솜씨는 말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몸돌의 문비와 사천왕상의 조각도 아주 섬세하고 옥개석의 귀꽃은 다소 육중해 보이는 옥개석의 무게를 하늘로 흩어버리는 묘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팔각으로 둘러진 지대석 또한 부도탑과 땅을 경계 짓는 기능 말고도 탑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힘을 보여줍니다. 이 찬란한 부도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음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원종대사의 할아버지뻘인 고달선원의 개산조 원감(圓鑑) 대사의 것이란 설이 있으나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원종 대사 부도(보물 제7호)는 고달사 부도에서 동쪽으로 200m 쯤 떨어져 있습니다. 훼손된 흔적이 없이 대체로 잘 보존된 이 부도 역시 팔각원당형의 양식을 따랐고 중대석에 화려한 용과 구름문양을 조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각 수법이나 균형미 등 전체적인 면에서 고달사 부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원종대사 부도가 위치한 곳에서 불과 20여 m 되는 곳에 축대가 있고 그 위로 요즘 세워진 비석들이 줄지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사각의 받침에 갓을 쓰고서 있는 이 비석들은 최근에 세워진 흔적이 역력한데 모두 20기가 넘습니다.

원종 대사 부도가 보물인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개인의 비가 들어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땅이 개인 소유일 수는 있지만 문화재보호법은 그렇게 지근거리에 새로운 조형을 설치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독기관이 눈길을 피해 좋은 터에 비를 세우려는 민심을 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사역의 후미에 자리하고 있는 고달사를 찾아갑니다. 점심 공양을 하던 주지 스님이 자리를 양보하며 "공양 하시라"고 권합니다.

"물론 무허가 건물들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절이 자리 잡은 것은 오래 됐습니다. 요즘도 군청에서 종종 나오지요. 철거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성지를 문화유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신행과 수행이 있는 성역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지 인근의 사찰을 '문화재보호사찰'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고달사 주지 도윤 스님의 말입니다. 스님은 고달사에서 매년 원종 대사의 탄신과 입적일에 제사를 모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부처님오신날에는 신도들과 등을 켜 들고 사지를 돌며 봉축을 하고 신도들이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지 인근의 사찰들을 '불법(不法)'의 사슬로 묶기 보다는 '불법(佛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고달사 주지는 고달프다"는 도윤 스님이 더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 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화재의 염주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 행운의 염주, 불멸의 염주





특별선물 : 단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외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